

'26.7월 금융시장 전망

국내외 채권시장 전망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나 본 자료의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관련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26.7월 금융시장 전망

01 이슈

- 유로존과 일본 인상 단행. 에너지 가격에 취약한 국가,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을 밑도는 순으로 빠른 긴축 대응
- 미국은 매파적인 동결. 내부적으로 의견이 다양한 모습이며 워시는 TF를 통해 인하 포석작업 착수
- 한국도 7월 인상 시작, 최종금리는 불확실성 잔존. 하반기 2차례 전망하며 추가 인상은 금융불안에 좌우
- 첫 인상 후 2~3개월 뒤 물가 단기 고점 통과, 반도체 수출 증가율 둔화에 맞물려 금리 진정될 것으로 전망

02 미국 국채시장

- 연내 인상 우려 남아 있을 3분기까지 투자의견 중립, 듀레이션 축소 뷰
- 종전을 반영하며 국제유가 안정세, 물가경로 5월을 고점으로 연내 3% 초중반으로 안정 예상. 연내 동결 전망
- 금리 경로는 10년물 기준 3분기까지 4% 중후반에 머무르다가, 연말 경 4% 초중반으로 하락 예상
- 인플레 추가 확대 제한적인 점 확인해가며 단기물 금리 안정, 재정적자 확대에 장기물 상승. 커브는 스티프닝

03 한국 국채시장

- 인상 사이클 최종금리가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투자의견 중립, 듀레이션 축소 뷰
- 올해 7,10월 인상해 최종금리 3% 예상. 주택가격과 환율 등 금융불안 확대 시, 내년 초 추가 1차례 인상 가능
- 성장을 전망 상향, 주택가격 우려, 정책당국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첫 인상 직후에도 금리 상승 압력 이어질 것
- 금리 변곡점은 첫 인상 2~3개월 후로 기대. 커브는 8월 예산안 공개 전후로 재정 확대 기조 불거지며 스티프닝

04 크레딧

- 연준의 연내 인상 우려로 인한 금리 완만한 상승 압력에 스프레드 소폭 축소 전망
- 스프레드 레벨 부담 속에 장기물 중심으로 약세. M&A 활성화와 AI 투자 자금 조달로 순공급 부담은 점증
- 현금 창출력 등 펀더멘탈이 견조한 기업 중심으로 국내외 자금 유입 이어질 것. 3분기 중 재투자자금 규모 양호
- 7월 초까지 신규 발행 부담. 종전 기대를 소화한 다음은 전반적인 스프레드 개선보다는 섹터별 차별화를 기대

글로벌 채권 Review

'26.7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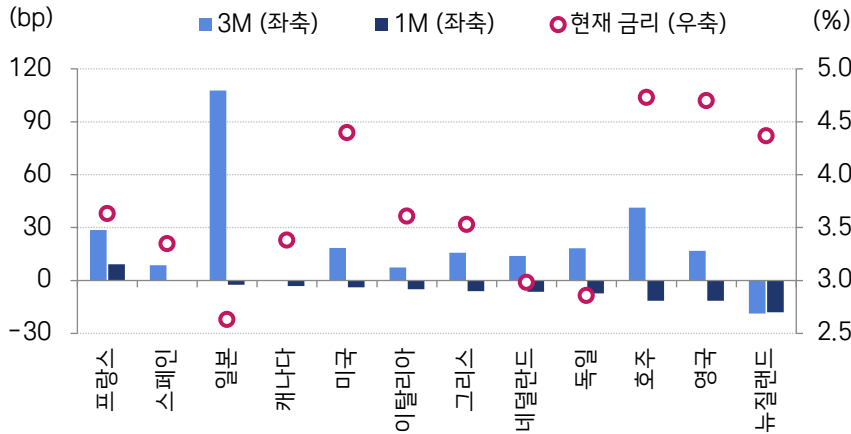
		글로벌 종합	선진국 정부채	글로벌 투자등급	글로벌 하이일드	미국 정부채	유로존 정부채	미국 투자등급	미국 하이일드	유럽 투자등급	유럽 하이일드	신흥시장 정부채 (\$)	신흥시장 정부채 (LC, U\$ H)	신흥시장 정부채 (LC, U\$ UH)	한국 국공채	한국 회사채
Performance	1M %	(0.59)	(0.72)	(0.33)	(0.38)	0.65	0.47	0.51	0.06	0.48	0.47	0.62	1.15	(0.55)	(1.29)	0.01
	3M %	0.98	0.66	1.57	2.39	0.69	1.96	1.73	2.26	2.39	3.34	4.53	2.86	5.31	(2.14)	0.33
	YTD %	(0.10)	(0.78)	0.28	1.25	0.65	1.32	1.19	1.75	1.37	1.75	3.21	1.71	3.48	(5.29)	(0.16)
	1Y %	0.73	(1.44)	2.99	4.80	3.10	1.36	4.68	5.70	2.60	4.24	11.67	5.54	12.02	(8.04)	0.18
	3Y %	10.72	5.87	18.39	29.34	10.32	8.47	17.10	28.73	15.82	24.42	34.14	17.83	31.50	5.44	12.45
Spread	현재 bp	44.4	7.3	78.7	292.7	-	-	75.5	281.6	79.7	274.7	241.1	-	-	-	-
	1M bp	1.5	0.4	2.5	18.6	-	-	3.7	24.1	0.4	11.5	3.8	-	-	-	-
	3M bp	(6.0)	(1.7)	(14.2)	(43.8)	-	-	(13.1)	(35.5)	(17.7)	(56.9)	(47.6)	-	-	-	-
	YTD bp	(0.2)	0.3	(1.0)	10.7	-	-	(2.1)	15.2	1.3	9.5	(12.3)	-	-	-	-
	1Y bp	(12.7)	(1.2)	(9.9)	(15.8)	-	-	(7.7)	(8.2)	(12.3)	(28.7)	(81.3)	-	-	-	-
	3Y bp	0.0	(6.2)	(60.4)	(137.5)	-	-	(47.5)	(108.5)	(83.4)	(168.5)	(191.2)	-	-	-	-
YTW	현재 %	3.76	3.44	4.66	6.95	4.30	3.07	5.14	7.21	3.41	5.38	6.90	-	6.05	3.98	-
	1M bp	(0.1)	(0.2)	0.9	21.1	0.4	(2.5)	1.2	25.5	(3.5)	12.1	(1.3)	-	(14.2)	15.2	-
	3M bp	(2.2)	0.7	(9.0)	(36.2)	16.0	(16.7)	0.1	(19.0)	(31.1)	(75.3)	(40.9)	-	(31.4)	32.0	-
	YTD bp	24.4	25.6	31.0	64.1	40.6	15.6	32.8	68.0	21.4	43.2	9.6	-	18.2	83.7	-
	1Y bp	29.0	39.8	21.9	13.2	26.5	36.3	14.8	15.1	34.4	20.8	(63.9)	-	4.0	133.6	-
	3Y bp	(7.8)	27.4	(61.9)	(169.2)	(8.9)	(11.5)	(33.7)	(129.2)	(97.3)	(229.7)	(146.3)	-	(27.0)	24.2	-
Duration	현재 년	6.31	6.85	6.01	3.27	5.88	7.08	6.94	3.27	4.61	3.04	6.31	-	5.26	7.27	-

자료: Bloomberg / 주: 신흥국 달러표시 정부채-JP morgan EMBIG Diversified Core, 신흥국 로컬통화표시 정부채- JP morgan GBI-EM, 그 밖의 지수는 Bloomberg Barclays, 6.28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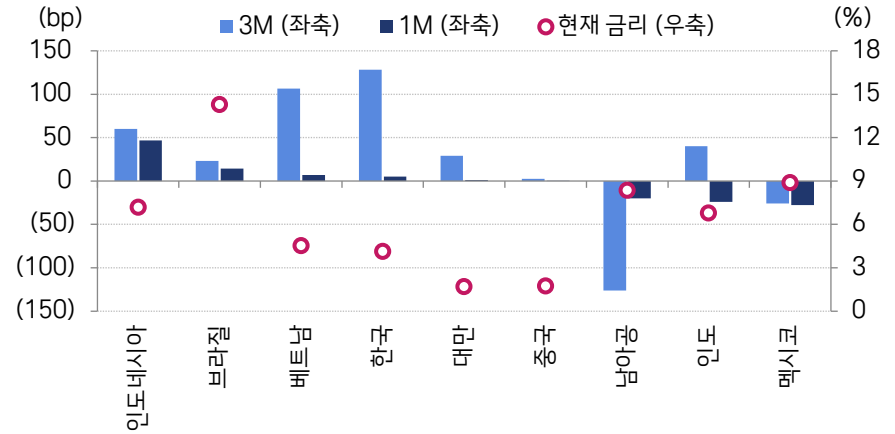
글로벌 채권 Review

'26.7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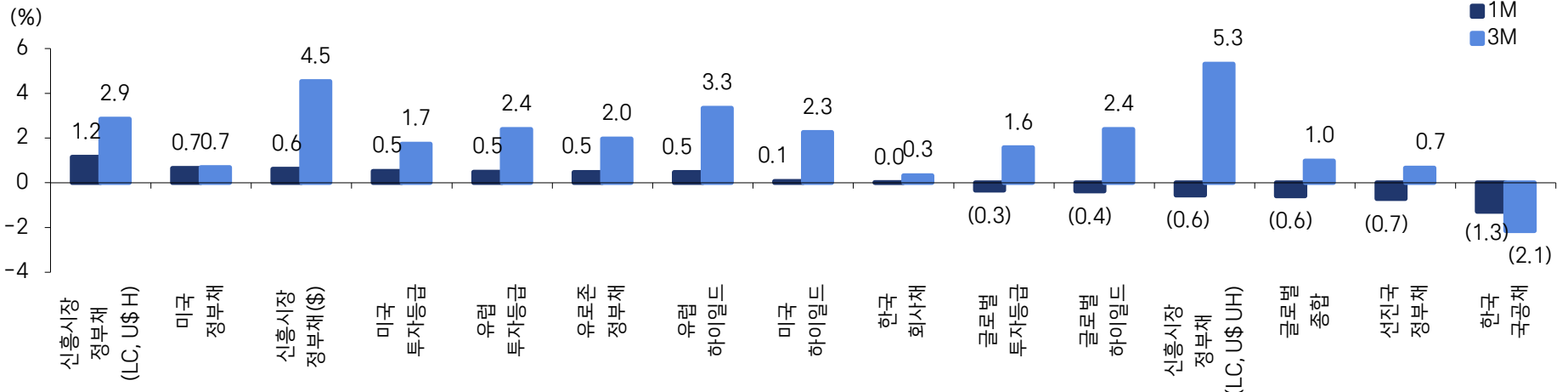
선진국 국채 10년 금리 변동과 현재 금리



신흥국 국채 10년 금리 변동과 현재 금리



채권 자산군별 총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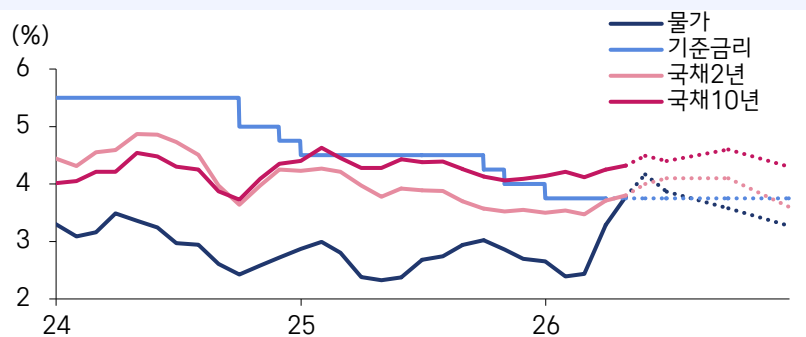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 신흥국 달러표시 정부채-JP morgan EMBIG Diversified Core, 신흥국 로컬통화표시 정부채- JP morgan GBI-EM, 그 밖의 지수는 Bloomberg Barclays, 6.28일 기준

결론 듀레이션 축소 뷰

'26.7월 금융시장 전망

미국: 연내 동결 전망 유지

- 시장에서 남아있는 인상 우려로 금리 경로는 10년물 기준 3분기까지 4% 중후반, 연말 경 4% 초중반으로 하락 예상
- 인플레이 추가 확대 제한적인 점 확인해가며 단기물 금리 안정, 재정적자 확대에 장기물 금리 상승. 커브는 스티프닝에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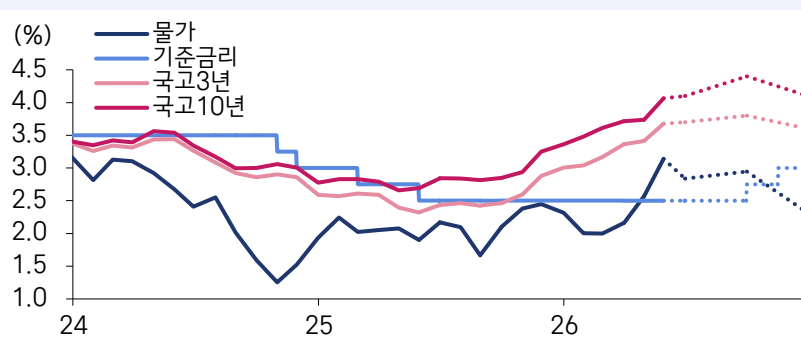


	1Q26	2Q26	3Q26	4Q26
기준금리	3.75	3.75	3.75	3.75
국채 2년	3.79	4.10	4.10	3.60
국채 10년	4.30	4.40	4.60	4.30
2/10 스프레드	0.51	0.30	0.50	0.70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한국: 하반기 2차례 인상 전망

- 성장률 전망 상향, 주택가격 상승 우려, 정책당국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첫 인상 직후에도 금리 상승 압력 이어질 것
- 금리 변곡점 시점은 첫 인상 2~3개월 후로 기대. 커브는 8월 예산안 공개 전후로 재정 확대 기조 불거지며 스티프닝



	1Q26	2Q26	3Q26	4Q26
기준금리	2.50	2.50	2.75	3.00
국고 3년	3.55	3.70	3.80	3.60
국고 10년	3.88	4.10	4.40	4.10
3/10 스프레드	0.33	0.40	0.60	0.50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26.7월 금융시장 전망
글로벌 긴축의 과정

유로존과 일본의 인상

'26.7월 금융시장 전망

6.11일 ECB 금리 인상. 긴축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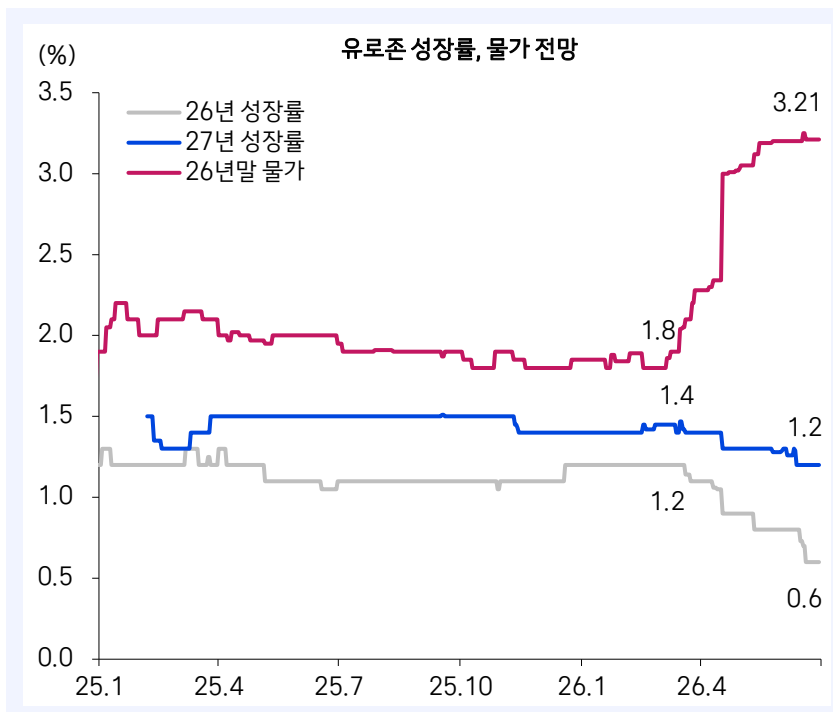
- 시장의 예상대로 예금금리를 2.25%로 25bp 인상
- 선도금리는 연내 추가 1~2차례 인상할 것으로 반영중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중동 전쟁 이후 물가 ↑ ↑ 성장률 ↓

- 올해 물가 전망은 3%대로 치솟음, 성장률은 0%대로 하락
- 과거 22년 경험을 교훈삼아 물가 충격에 기민하게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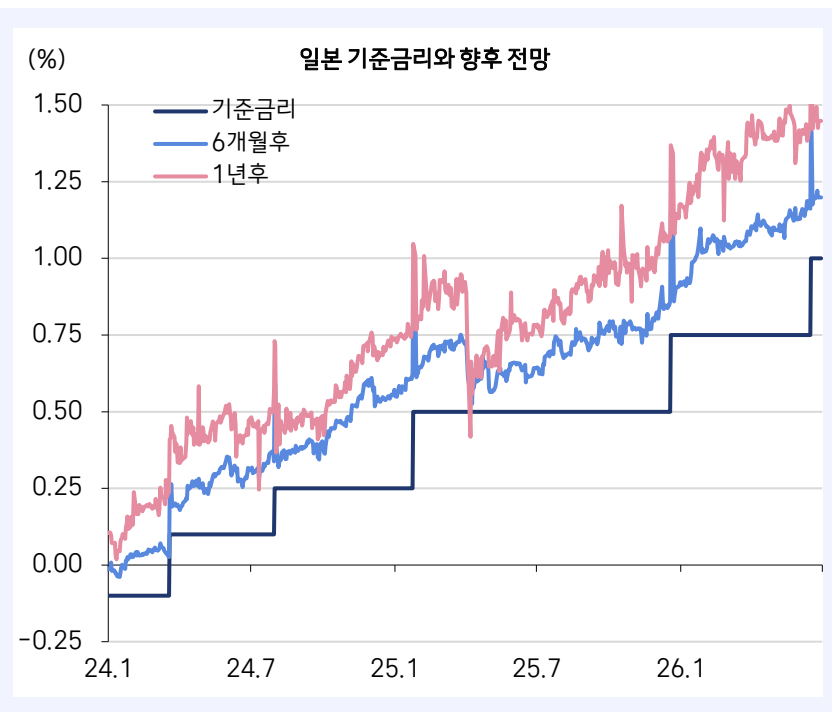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유로존과 일본의 인상

'26.7월 금융시장 전망

6.16일 BOJ 금리 인상, 정상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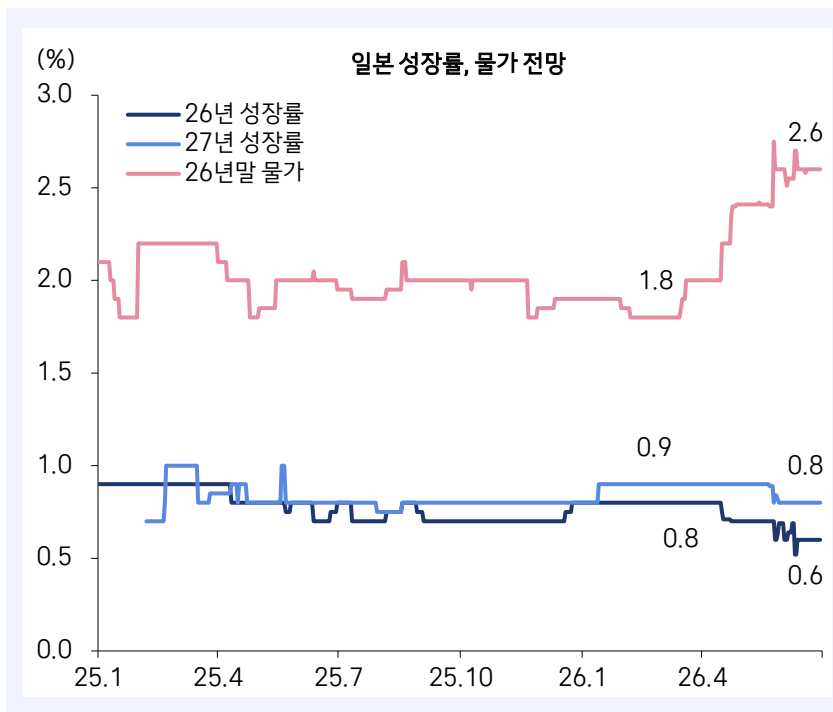
-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로 25bp 인상
- 연내 1차례, 내년 1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중동 전쟁 이후 물가 ↑ 성장률 ↓

- 24.3월부터 시작된 금리 정상화의 연속
- 경제 하방 리스크 경감, 물가 상방 리스크 확대됐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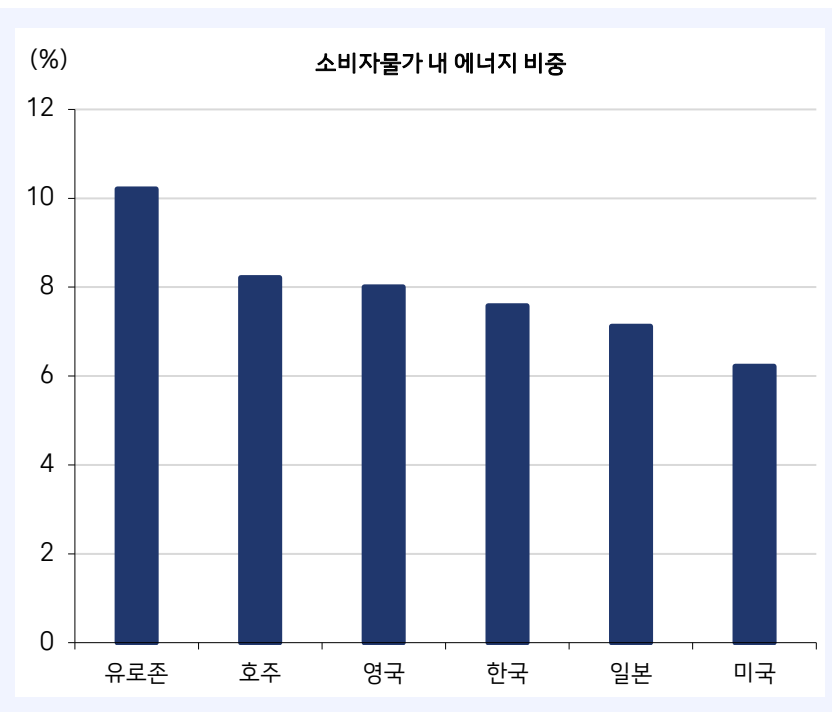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긴축의 도미노

'26.7월 금융시장 전망

에너지 가격에 취약 → 빠른 긴축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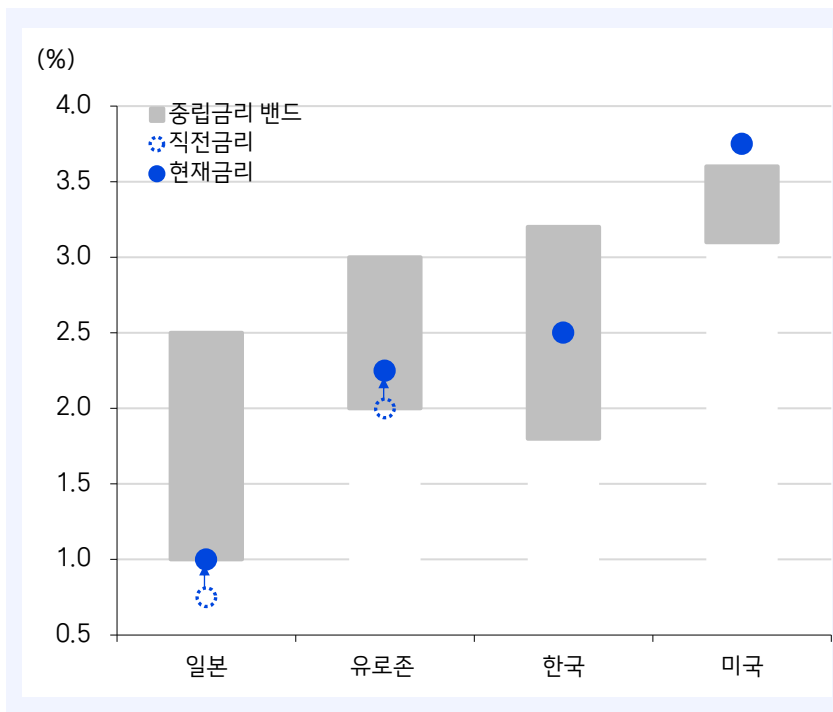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 내 에너지 비중이 높을수록 물가 상방 압력 큼
- EU > 한국 > 일본 > 미국 순으로 물가가 에너지가격에 노출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기준금리 < 중립금리 → 빠른 긴축 대응

- 유로존, 일본은 중립금리 하단에서 중간 수준으로 금리 조정
기존의 완화적이었던 통화정책의 조절
- 한국은 중간 수준, 미국은 현재 긴축적인 기준금리 레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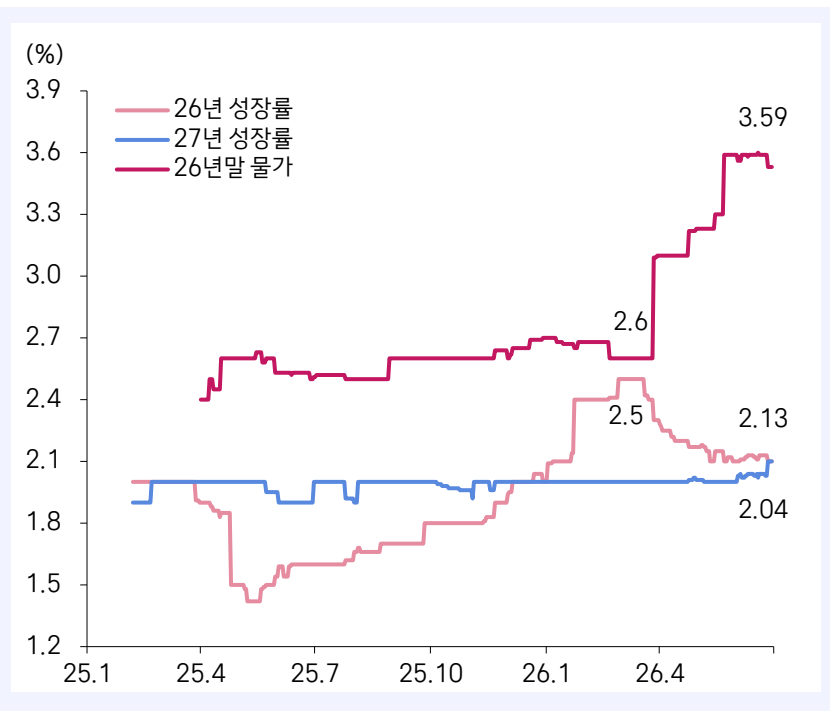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미국의 사정

'26.7월 금융시장 전망

6.17일 Fed 금리 매파적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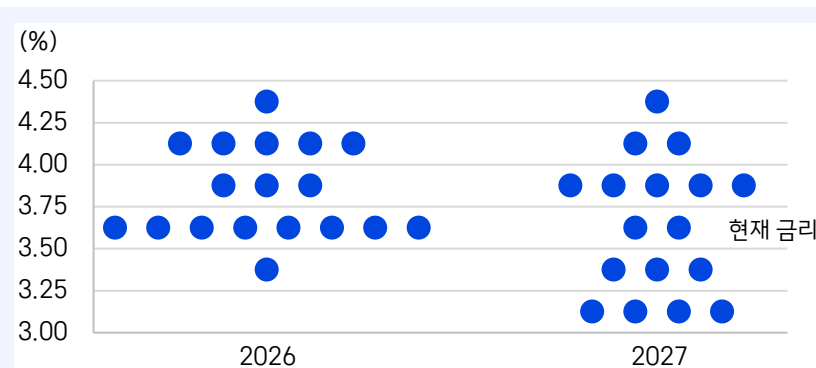
- 시장은 4분기 1~2차례 인상을 반영중
- 중동 전쟁으로 미국 올해 물가도 3% 중반으로 상향, 성장률은 2% 초반으로 둔화 (강한 고용과 투자가 하단 지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내부 이견 다양. 워시의 TF 시도

- 내년까지 3차례 인상부터 2차례 인하부터 넓게 분포된 의견
- 워시는 TF를 통해 인하 쪽으로 의견을 모으려는 의도 (정책 판단 경제 데이터 점검,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정비 등)



TF 과제	주요 역할 및 검토 내용
① 소통 방식	연준의 소통 방식 전면 재검토 (포워드 가이드런스 폐지 및 점도표 평가)
② 대차대조표	6.7조달러 규모의 국채 및 MBS 축소 방안 연구
③ 경제 데이터	물가·고용 등 기존 정책 결정 기준 지표의 신뢰성 검토
④ 생산성과 고용	AI 기술 대전환이 잠재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 파악
⑤ 인플레이션 분석틀	현대 경제 구조에 맞는 물가 안정(2% 목표) 달성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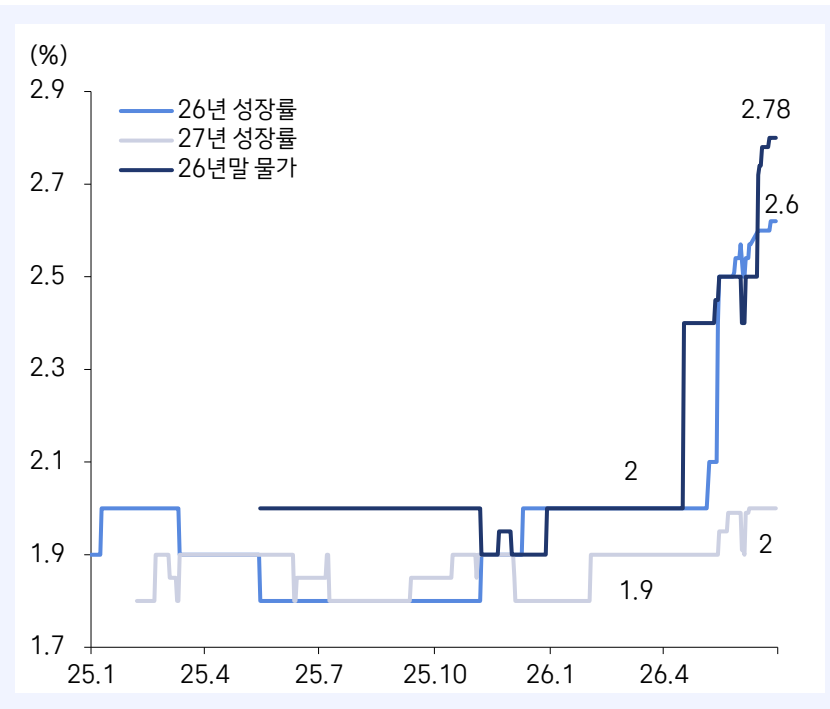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한국의 인상

'26.7월 금융시장 전망

한국만 전쟁 이후 물가↑ & 성장률↑↑

- 물가 전망은 2% 중후반으로 상향. 긴축 필요성 자극
- 반도체 사이클 훈풍에 따른 투자와 수출 전망 개선
- 정부의 지원금 덕분에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도 양호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7.16일 BoK 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

- 선도시장에서는 하반기 2차례 인상 반영중
- 물가와 성장 모두 상향되는 덕분에 내년까지 5차례까지 반영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금리 전망 및 대응 전략

'26.7월 금융시장 전망

주요국 기준금리 중립수준 상단으로 조정

- 유로존과 일본은 하반기 추가 1차례씩 인상
- 한국은 최종금리 3%로 하반기 2차례로 인상
- 미국은 워시의 TF결과를 대기하며 중립금리 상단에서 동결

국가	기준금리 (6월)	향후 물가/경기 판단	기준금리 전망 (연말)
유로존	2.0→2.25%	고물가 부담은 성장률 추가 하향 요인	2.5%(1회)
일본	0.75→1.0%	기준금리 정상화 과정 지속 (성장률 0%대 정체)	1.25%(1회)
미국	3.75% 동결	5월 물가(4.2%) 연고점 형성 후 둔화 예상	3.75%(동결)
한국	2.5% 동결	추가 상향 요인: 성장률 개선, 주택가격 상승	3.0%(2회)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미국: 기준금리 동결 예상

종전으로 유가 큰 폭 하락, 성장률은 잠재 (2.0%)수준,
현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상단인 점 감안시 동결 지속 예상
⇒ 시장 컨센은 금리인상 우위 여전해 금리 상승압력 잔존
⇒ 10년 4.4~4.7%범위 등락 후 4Q 하락(연말 4.3%)

한국: 기준금리 2회 인상 예상

(하우스뷰) 올해 7,10월 인상 (금융불안 확대시 내년 +1차례)
내년 3월 이후 에너지물가 YoY 급락하며 물가 우려 진정
첫 인상후에도 최종금리 불확실성에 상승압력 지속
⇒ 10년물 4%중반까지 열어두고 듀레이션 축소 필요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26.7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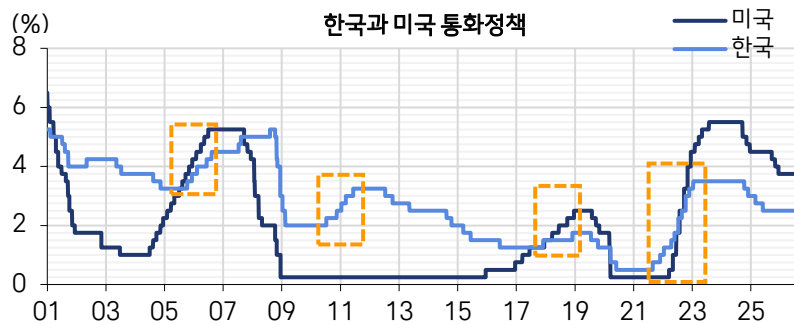
한국 과거 인상기 시사점

한국의 인상

'26.7월 금융시장 전망

05년 이후 한국 인상기 50~300bp ↑

- 미국의 인상이 없었던 10년과 17년은 각각 125, 50bp
- 대외 인상이 동반되면 200, 300bp까지 큰 폭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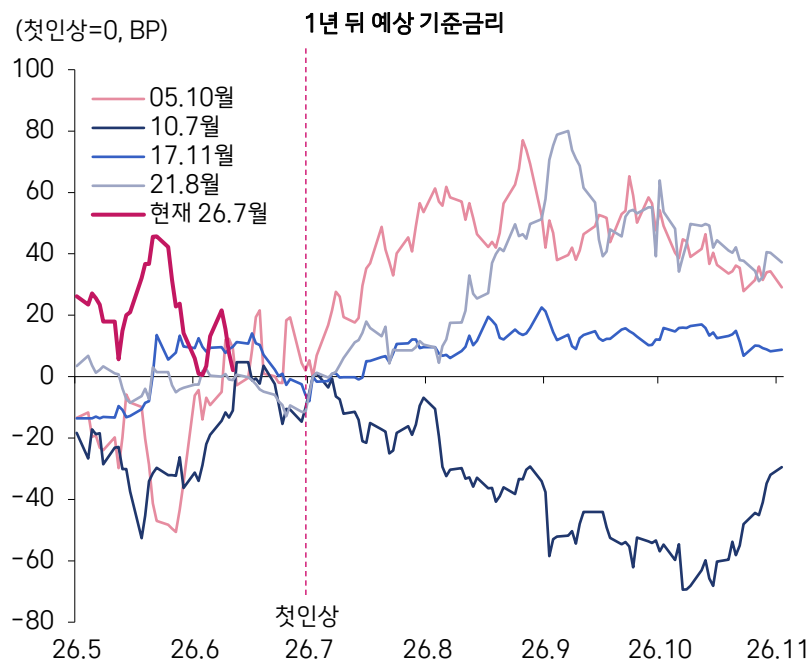


인상시작	마지막인상	시작금리	최종금리	인상폭 (bp)
05.10월	08.8월	3.25	5.25	200
10.7월	11.6월	2.00	3.25	125
17.11월	18.11월	1.25	1.75	50
21.8월	23.1월	0.50	3.50	300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과거 첫 인상 이후에도 인상 우려 확대

- 미국 인상 없으면 기존 전망 + 1차례 정도 인상 추가 반영
- 예외) '10년은 반기에 25bp 정도로 매우 더디게 인상 진행.
한국의 빠른 인상, 유로존 위기 등으로 첫 인상 이후 인상 우려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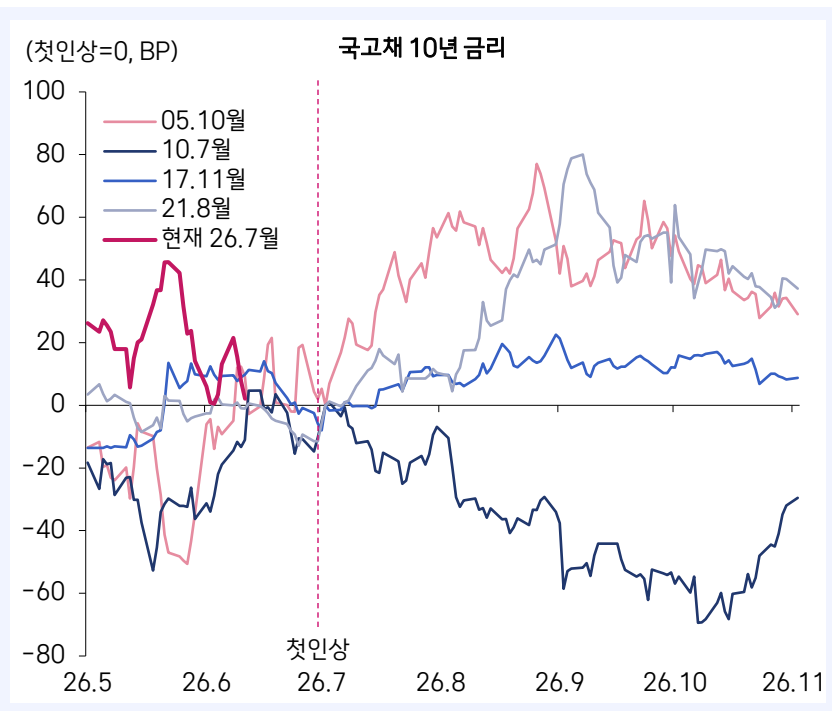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금리 변곡점은 첫 인상 후 2~3개월 뒤

'26.7월 금융시장 전망

첫 인상 이후 2~3개월 뒤 금리 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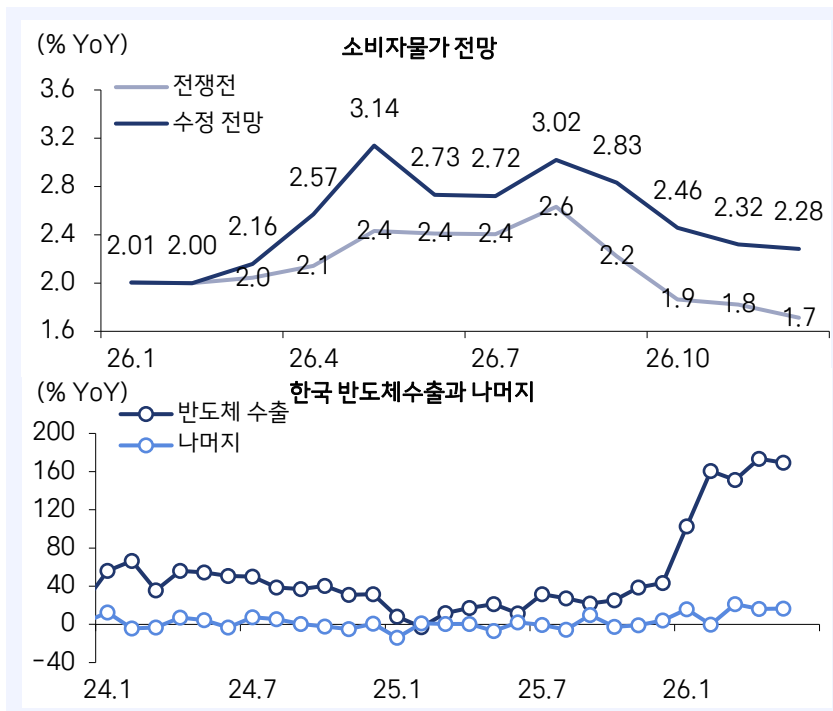
-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 첫 인상 이후에도 금리 상승 압력 잔존
- 미국의 인상 여부에 따라 상승폭은 좌우. 연준 동결 전망하는 가운데 금리 움직임 17.11월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시기적으로 맞물릴 여타 금리 진정 요인

- 1) 8월 물가 단기 고점 통과 후 YoY 기준 2% 중후반으로 둔화
- 2) 반도체 수출 YoY 증가율 둔화 (작년 4Q 시작된 가격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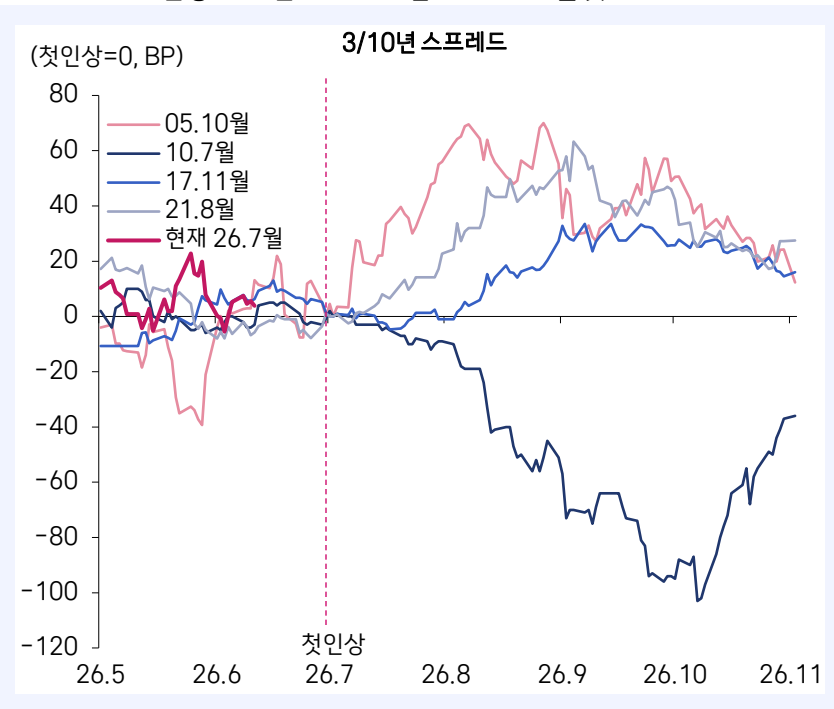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커브는 시차를 두고 결국 스티프닝

'26.7월 금융시장 전망

직후 2주정도 플랫, D+1M 이후 스티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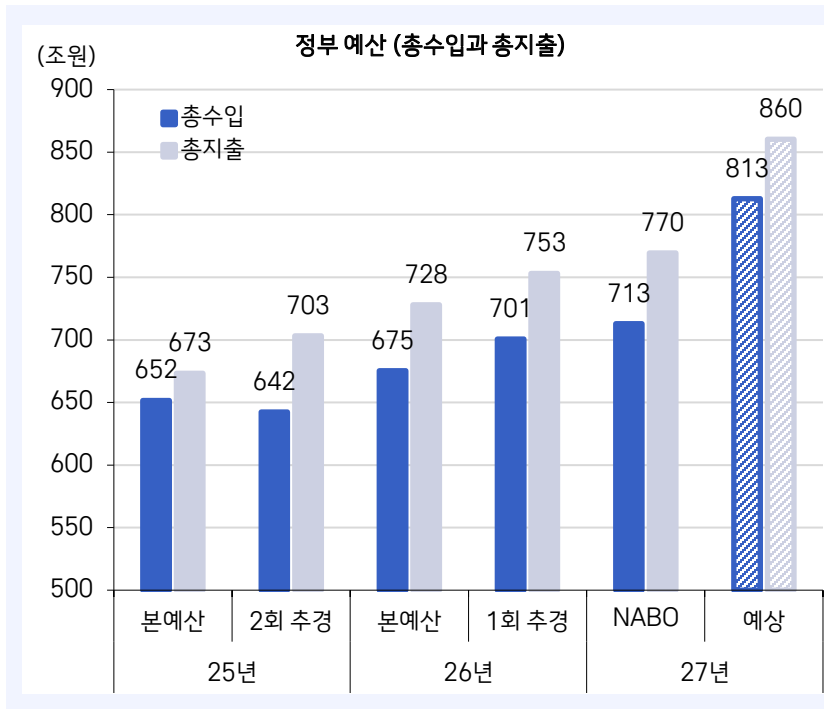
- 과거 인상 단행 직후에는 3/10년 스프레드는 진정/횡보
- 2~4주 지나면 3/10년 커브 스티프닝 압력 재부상
- 변수)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단행 → 추가 스티프닝
차기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짐 → 오히려 플랫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시기적으로 맞물릴 여타 금리 스티프 요인

- 현 정부의 뚜렷한 재정 확대 기조. 부채 상환보다는 지출
- 8월 예산안 전후로 텀프리미엄과 장기금리 상승 압력 주의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26.7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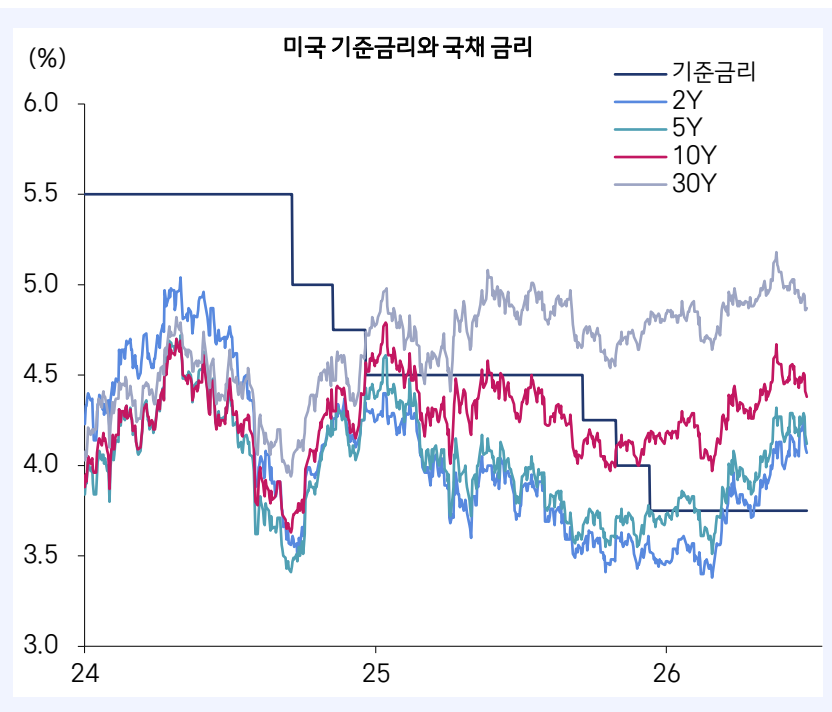
미국 채권

리뷰 금리 혼조, 커브는 플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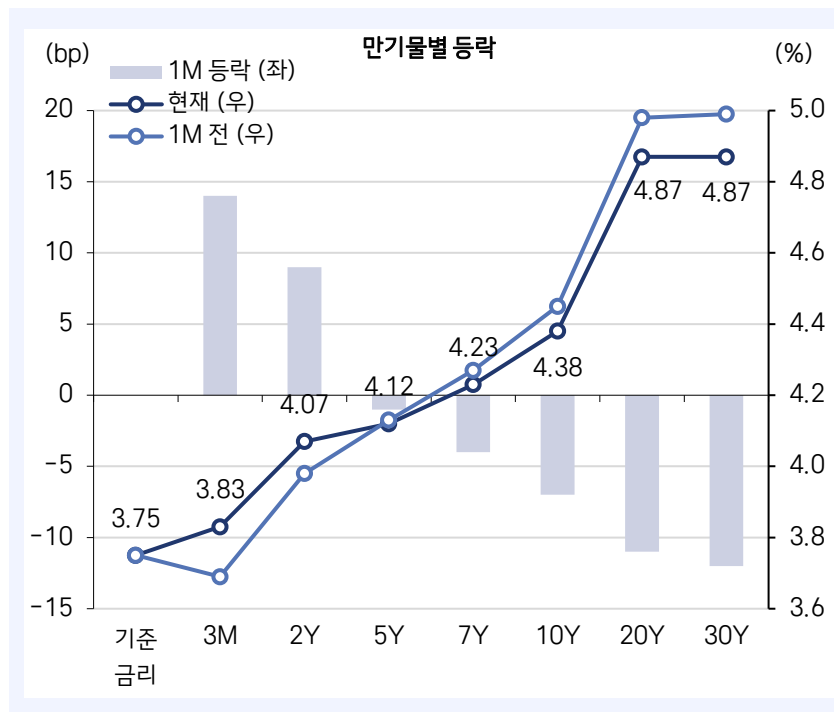
'26.7월 금융시장 전망

매파적이었던 6월 FOMC 결과를 소화하며 연내 인상 경계 부상, 단기물 금리 상승

- 월초부터 5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와 중동 평화협정 MOU 체결 지연으로 금리 상승. 연초 이후 미국 고용 경기 매우 견고한 모습
- FOMC회의 점도표에서 중간값 기준 올해 1차례 인상을 시사하며 단기물 금리 큰 폭 상승. 장기물은 하락하며, 커브는 플랫닝 전개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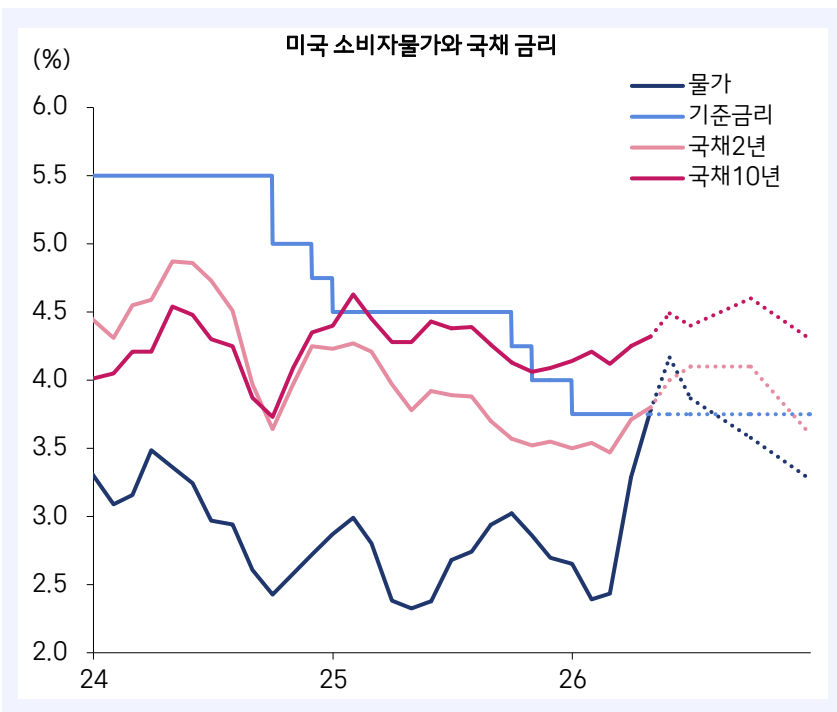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결론 연내 동결, 듀레이션 축소 전략

'26.7월 금융시장 전망

연내 인상 우려 남아 있을 3분기까지 투자의견 중립, 듀레이션 축소 부

- 종전을 반영하며 국제유가 안정세 보이고 있으며 물가경로 5월을 고점으로 연내 3% 초중반으로 안정 예상. 연내 동결 전망
- 시장에서 남아있는 인상 우려로 금리 경로는 10년물 기준 3분기까지 4% 중후반에 머무르다가, 연말 경 4% 초중반으로 하락 예상
- 인플레 추가 확대 제한적인 점 확인해가며 단기물 금리 안정, 재정적자 확대에 장기물 금리 상승. 커브는 스티프닝에 무게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1Q26	2Q26	3Q26	4Q26
기준금리	3.75	3.75	3.75	3.75
국채 2년	3.79	4.10	4.10	3.60
국채 10년	4.30	4.40	4.60	4.30
2/10 스프레드	0.51	0.30	0.50	0.70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26.7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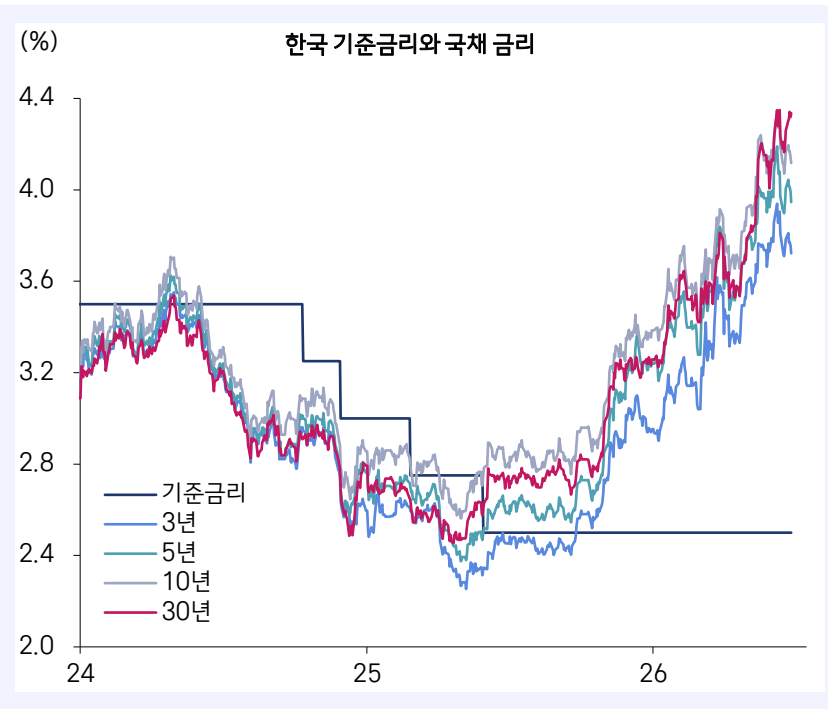
한국 채권

리뷰 금리 상승, 커브는 스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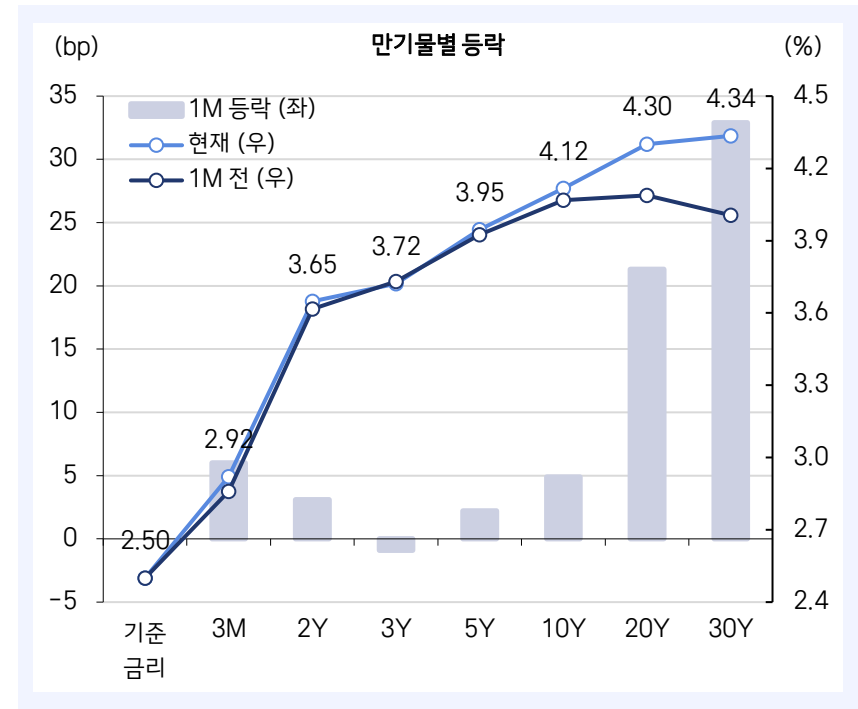
'26.7월 금융시장 전망

한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 대통령의 확장 재정 발언 이어지며 금리 상승

- 신현송 총재가 강한 경기 성장세를 언급하며 7월 금통위에서 인상 단행할 것임을 재차 시사. 기준금리 인상 앞두고 금리 상승
- 종전 MOU 공식 서명으로 금리 하락 시도했으나, 미국의 인상 경계감까지 상승 압력 가세. 커브는 확장 재정 언급 등에 스틱프닝 전개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금리 등락 요인과 방향성

'26.7월 금융시장 전망

구분		전망	금리 방향성
정책	정책결정	7, 10월 금리 인상 단행 전망 긴축 사이클 시작, 인플레이 압력에 적극적인 대응	+1
	최종금리	금융시장 컨센서스: 3.25~3.5% (올해 2차례, 내년 1~2차례) 하우스뷰: 3~3.25% (올해 2차례, 내년 1차례)	+0
펀더멘탈	경기	반도체 사이클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 견고 정부 지원금으로 소비 경기도 양호	+1
	물가	5월을 기점으로 연고점 통과 에너지 물가 진정, 재화 등 상품물가 움직임 주의	-1
수급		6월 일시적으로 축소했던 발행 규모 점진적 정상화 환율변동성 등에 소극적인 WGBI 수요 지속	+1
커브		단기물 금리는 이미 반영된 인상 우려로 좁은 폭 등락 현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 예산안 공개 앞두고 장기물 공급 부담 점증	스티프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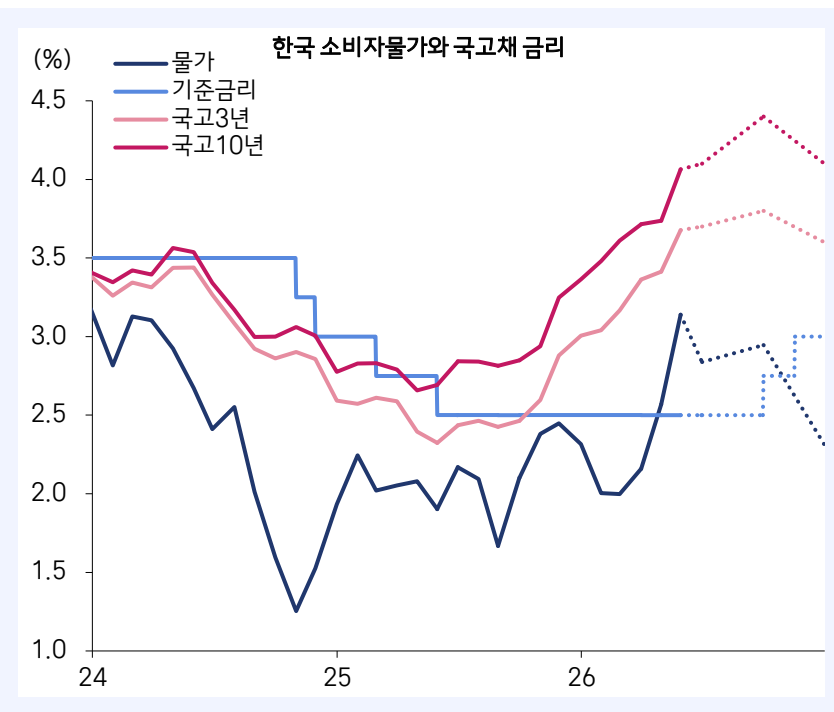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결론 연내 인상 전망, 듀레이션 축소 전략

'26.7월 금융시장 전망

인상 사이클 최종금리가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투자의견 중립, 듀레이션 축소 부

- 올해 7월과 10월 인상해 최종금리 3% 예상. 주택가격과 환율 등 금융불안 확대 시, 내년 초 추가 1차례 인상 가능
- 성장률 전망 상향, 주택가격 상승 우려, 정책당국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첫 인상 직후에도 금리 상승 압력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금리 변곡점 시점은 첫 인상 2~3개월 후로 기대. 커브는 8월 예산안 공개 전후로 재정 확대 기조 불거지며 스티프닝 압력 우세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1Q26	2Q26	3Q26	4Q26
기준금리	2.50	2.50	2.75	3.00
국고 3년	3.55	3.70	3.80	3.60
국고 10년	3.88	4.10	4.40	4.10
3/10 스프레드	0.33	0.40	0.60	0.50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8일 기준

'26.7월 금융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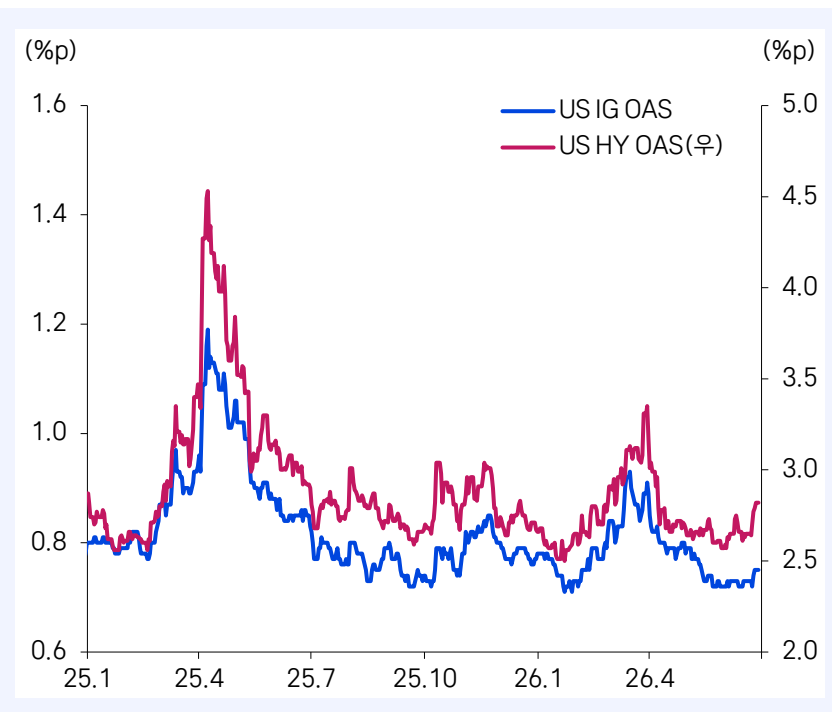
미국 크레딧

리뷰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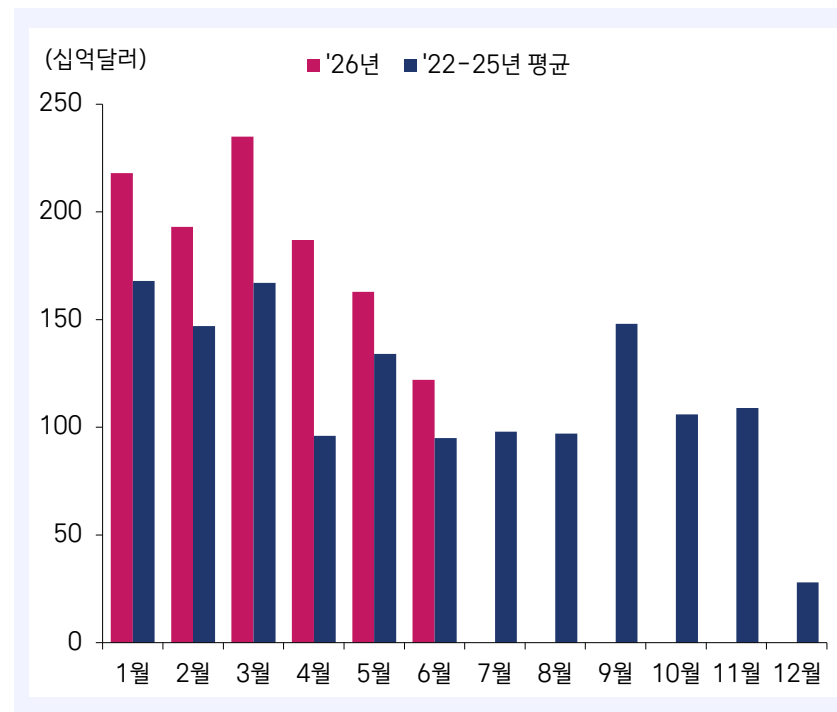
'26.7월 금융시장 전망

강한 자금 수요 유입에도 AI 투자자금 조달 부담. IG, HY 스프레드 소폭 확대

- 미국 IG와 HY 스프레드는 각각 전월대비 3bp, 22bp 확대. 스프레드 레벨 부담 속에 장기물 중심으로 약세, 발행 성과 둔화
- M&A 활성화와 AI 투자 자금 조달로 순공급 부담은 점증. 해외 IB에서는 올해 IG 총발행 전망 1.9조달러로 상향 (직전 4개년 1.4조달러)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6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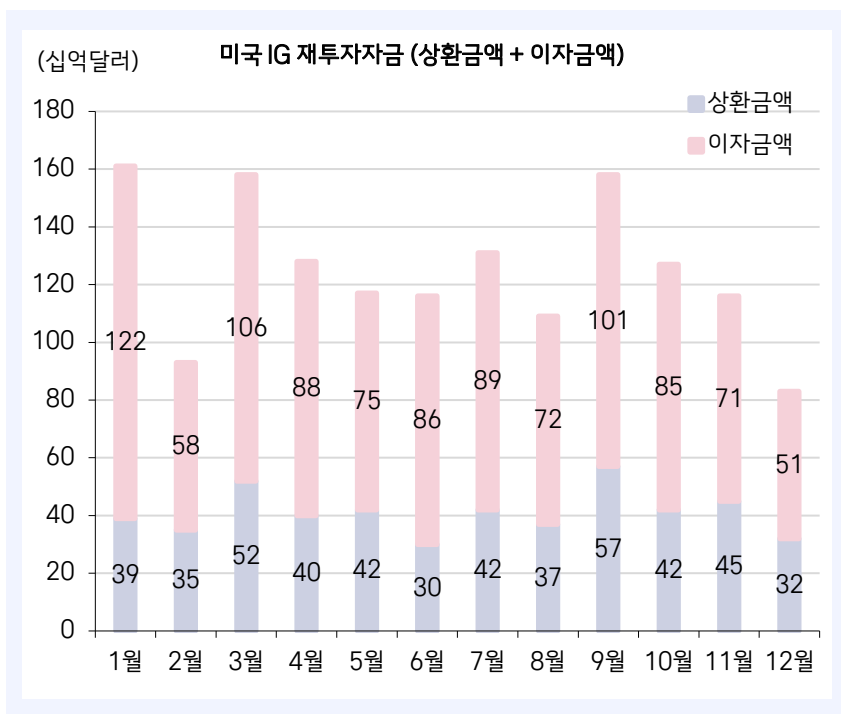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2일 기준

결론 스프레드 소폭 축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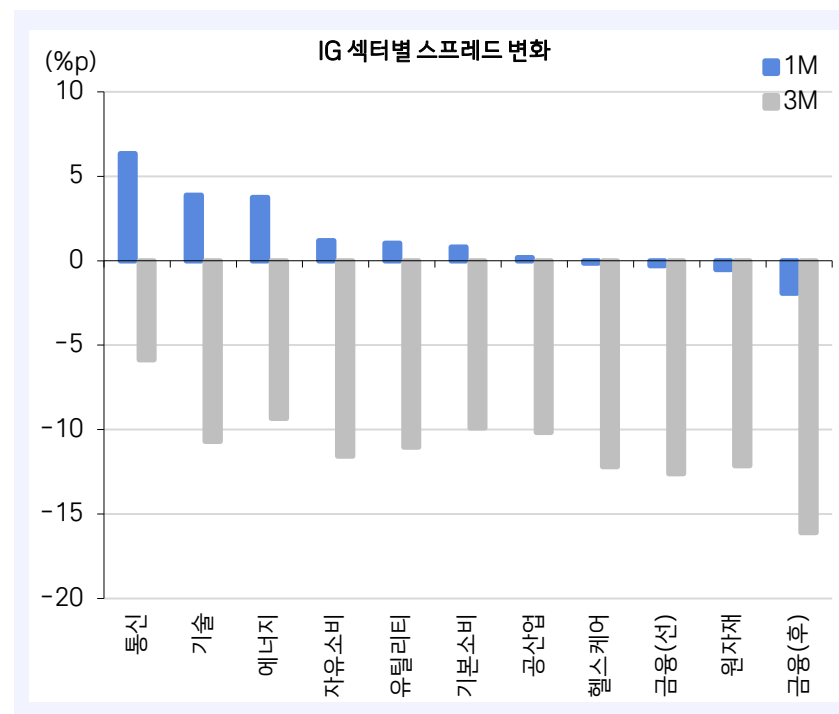
'26.7월 금융시장 전망

연준의 연내 인상 우려로 인한 금리 완만한 상승 압력에 스프레드 소폭 축소 전망

- 현금 창출력 등 펀더멘탈이 견조한 기업 중심으로 국내외 자금 유입 이어질 것으로 예상. 3분기 중 재투자자금 규모 또한 양호
- 7월 초까지는 신규 발행 부담 주의. 종전 기대를 소화한 다음은 전반적인 스프레드 개선보다는 섹터별 차별화를 기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2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투자리서치센터 / 주: 6.22일 기준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대표전화 : 02-3774-7600 콜센터 : 080-377-4777 [상담시간안내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